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남 성 우 한국외국어대 한국어교육과 교수

1. 서론

언어란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서로 간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언어를 말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의 소속감과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결속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외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외국의 재외국민 사회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포 2세, 3세에게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자, 한글 학교와 한국어 교육기관 등에 보내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등 한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세계화·국제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문물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과 안목을 갖고 국제 사회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국제화'라는 말은 무조건 외국 문물을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고, 역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 한국어 교육을 통한 문화 전달 방법이다.

필자는 국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어떠했으며, 현재 한국과 외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과 한국어 교육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한국 정부에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려고 한다.

2.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과는 다르다. 국어 교육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제 2언어 또는 외국어로 익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에는 발음, 구조 등에 대해서는 직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학습 과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합니다'라는 글자를 보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도 (합니다)로 읽는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ㅂ'과 'ㄴ'이 합쳐지면 'ㅃ'이 'ㅁ'으로 발음된다는 발음규칙('ㅂ+ㄴ=ㅃ')을 배워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똑같은 구문이라도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라는 문장은 적격의 문장이고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갑시다.'라는 문장은 왜 비문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필요하다.

이처럼 학습의 대상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인 만큼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언어, 관습, 사고 방식, 그리고 문화까지도 다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미국무성이 외교 관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외교관에게 가르치거나 취급하는 세계의 언어 수는 45종인데, 지난 40여 년 간 국무성이 외교관들에게 교육을 시켜 온 결과를 통계로 낸 표(ACTFL)에 의하면 총 4단계로 분류한 언어 중 한국어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에게 가장 어려운 4 단계에 놓여 있다(심지어 한국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하다는 일본어는 한국어보다는 쉬운 3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어를 다른 언어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중 (특히 외국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는 교재·지도 방법·보조 자료 등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한국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한국학에 관한 여러 문제를 연구하거나 한국과의 사업을 고려한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그 누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인가. 따라서 고조되어 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력 신장도 중요하지만, 그와 아울러 한국의 이해, 한국의 문화 보급에 절대적 요건이 되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 2언어로서의 외국어 습득이 모국어 습득 과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모국어 습득은 일상 생활을 통해 차례로 모국어의 기능을 획득해 나가지만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한국어로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심지어 한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한국어보다는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제한된 교실 수업과 더불어 가정이나 사회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언어 강화(reinforcement) 기회만을 갖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듯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회, 문화, 관습, 전통 등의 배경을 고려하여 그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외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것인가 하는 상황 설정을 한다는 것은 특수한 개인적 측면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측면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본 언어 기능을 동시에 가르치면서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 사회,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한국인의 생활 관습,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를 가르치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습득하려는 동기와 성취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1) 언어 습득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자신이 접한 환경의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인간은 청사진 형태의 언어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어떤 언어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언어능력의 청사진이 그 특정 언어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라면서 언어능력이 표면화되어 5~6세가 되면 적격의(well-formed)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별하고, 좀더 성장하면서 무한수의 문법적 문장을 만들어내는 언어수행을 한다. 다른 하나는 모국어가 아닌 제 2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제 2언어로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모국어를 가진 학습자에게 모국어와 비슷한 정도의 언어능력을 학습시키는 제 2언어로서의 언어 교육으로, 예를 들면,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제 1언어인 영어 외에 그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두번째는 모국어 이외에 학습자 개인의 관심 또는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연구, 사업, 개인적 관심 등에 의해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모국어에 대한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수행(performance)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 Sapir - Whorf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우리들의 우주관, 우주 분석 방법, 경험 방식 등도 그에 대응하여 다

르다고 한다. 즉 언어가 그 사용자의 사고 방식이나 정신 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 가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합리적인 언어관에서는 보편적 사고의 가능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가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을 볼 때, 이미 습득한 모국어 체계가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사용하는 언어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외국인에게는 7색 무지개인 것을 한국인은 5색 무지개로 인지, 표현하는 것은 한국어에 색을 나타내는 순수한 국어 어휘가 다섯 개 - 하얗다, 까맣다, 파랗다, 빨갳다, 노랗다 - 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 습득 과정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인지가 발달된 학습자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다르다. 또한 언어 습득에 관한 이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행동주의 경험 철학,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를 둔 경험주의 언어 습득 이론이며, 또 하나는 이에 맞서 대두된 인지주의 철학,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초를 둔 합리주의 언어 습득 이론이다. 경험주의 이론은 구조주의 언어학 원리를 기초로 한 것으로 모방, 반복에 의한 문형 연습으로 언어 습관을 형성한다는 이론이고 합리주의 이론은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인간은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특정 언어 실현 환경에 의하여 언어에 대한 규칙 체계가 내재화되고, 그럼으로써 무한히 많은 문법적 문장(전에 경험하지 않은 문장까지도)을 창조적으로 생성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경험주의 언어 습득 이론이, 1960년대 이후에는 합리주의 언어 습득 이론이 언어 교육에 활용되었다.

2) 한국어 교수법

1960년대 이전의 기존 외국어 교육 교수방법으로는 문법을 설명하고 내용을 번역하는 문법 번역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 없이 목표 언어를 직접 사용하여 교육하는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 독서를 통해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독서식 교수법(Reading method)과 유아의 모국어 습득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동의 연속적 동작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이해와 습득에 착안한 심리적 방법(Psychological method), 그리고 청각 구두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효과적 교수방법으로 인정되었던 청각 구두 교수법은 언어의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지 않으며 언어 습득의 유일한 방법은 모방과 반복이라고 하여 자동적 습관이 될 때까지 교사를 따라 문형을 발음하고, 외우고, 실현하는 교수방법이다. 읽기나 쓰기보다는 암기한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형 연습을 반복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 암기하지도 않은 문장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 착안한 것이 J.B. Carroll의 인지학습 이론(Cognitive Learning method)이다. 이 인지학습 이론이 1960년대 이후 외국어 교육에 활용되었다. 외국어 교육은 음운 유형, 문법 유형, 어휘 유형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청각 구두 교수법이 강조하지 않은 언어의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이 인지학습 이론은 의사 소통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살아 있는 언어는 규칙에 지배된 창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문법 규칙은 심리적으로 실존하고, 인간은 그 산 언어로 사고하고 표현한다고 하는 Noam Chomsky의 이론에 따라 새로운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창조적 언어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의사 소통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교수 방법에는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 설정 방법(The Situational Reinforcement), 시간적인 수단과 청각적인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시청각 구조적 전체 방법(The Audio - Visual - Structural - Global method), 교재가 일련의 m - phase와 c - phase(m은 mimicry, memorization, manipulation의 약자이고, c는 conversation의 약자로 수업이 모방 - 암기 - 조작의 단계와 대화의 단계로 진행된다

다)로 되어 있는 초단파 방법(The micro-wave method)이 있는데, 이러한 교수 방법 이외에도 상황 설정 방법과 유사하면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켜 학습자 스스로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구두문제 해결 방법(A Verbal Problem Solving Method)이 있으며, 교사는 수업시간에 침묵하고 대신 학습자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학습자 스스로 언어를 깨우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침묵식 교수법(The Silent Way) 등이 있다.

이러한 교수 방법은 학습자가 실제로 학습하는 목표 언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초급의 경우는 청각 구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 목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창조성 활용 훈련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청각 구두 교수법은 초급 학습자에게, 인지 학습 이론은 고급 학습자에게 사용되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교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좀더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보여 주는 것이다. 더구나 한 가지 교수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 교수 방법의 특성을 살려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해 갈 때에는 무의식적이며 수동적이다. 즉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에는 모든 문장을 기억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언어의 본질을 체계화하면서 그 체계의 사용을 습득한다. 그래서 어린이는 외국어의 경우에도 반복을 통해, 즉 학습의 기술 습득만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식적이고 분석적이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학습의 기술습득만이 아니라 목표언어의 문학과 문

화에 접근하면서 그 목표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다.

우선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교재는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필요가 무엇이며,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기 원하는가를 고려하여, 그들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문법 형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유의미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몸으로 익히고 사용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란 한국의 전통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분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폭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의 전통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나 현안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려는 욕구가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의 목적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언어 기능에 역점을 두고 이 4가지 언어 기능이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균등하게 숙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일상 생활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간단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실용적인 면과 4가지 언어 기능을 습득하면서 한국인의 문화와 사고 방식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이상적인 면이 있다. 한국어 교육의 최선의 목표는 한국어의 논리와 학습자의 논리를 결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인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재 개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의 기본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상관적·상보적 관계를 가진다.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언어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말하기, 듣기는 음성 위주의

순간성을 가지면서 화자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에 비해 읽기, 쓰기는 문자 위주의 영구성을 띠며 정보 습득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말하기 기능 교육을 위한 교재는 내용을 대화체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음성적·음운적 식별 능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한글의 모음부터 시작하여 자음과의 배합을 가르치고 자음, 모음, 자음의 배합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하기를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 발음이다. 한국어의 발음이 영어나 다른 외국어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소리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때 글자도 같이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음성과 문자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뜻이다.

읽기 중심의 교재는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문학 작품, 신문 기사, 학습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저서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은 기본적 실용적 목표에서 이상적 목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초급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말하기 중심의 교재에서 제시한 문법 요소, 어휘를 활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읽기 중심의 교재 역시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야기를 직접 소리내어 읽거나 묵독한 후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로 또는 쓰기로 표현할 수 있다. 듣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직접 읽어 주거나 녹음하여 들려주고 내용 이해를 질문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 본다. 말하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재를 기초로 하여 듣기용 교재는 상황에 따라 기존의 것을 활용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다.

말하기 중심의 교재와 읽기 중심의 교재는 학습자에게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제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상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수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시켜 한국인의 생활 관습, 사고 방식, 한국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상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문, 잡지, 문학 작품 등에서 한국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

교재를 편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재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관적·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재 편찬 형식은 인쇄물, Audio Tape, Video Tape, CD-Rom, 인터넷 프로그램 등이 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시청각 교재를 제작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오래 기억하게 하며, 자신의 언어수행을 화면을 통해 보게 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흥미롭게 하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강화해 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 교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달하는 교사가 전달 방법이 미숙하거나 학습자의 학습 능력이 교사의 요구를 따르지 못한다면 언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교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교사의 교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든 철저하게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 현장에 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교안과 관계없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과 자질을 가진 교사이말로 교수 방법에 능한 교사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습자는 상당량의 연습을 필요로 하고, 교사와 학습자 모두 인내심을 필요로 하며, 교사와 학습자는 각기 언어교육, 언어습득에 적성이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목표와 신념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행동이 때로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어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한국어 능력 평가

한국어 능력 평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제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표)한국어 능력시험의 단계별 정의

1급 한국어 능력 평가

사회문화적 요구		이질적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 의지와, 주변 한국인들의 최소한의 도움 아래 개인 영역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공공영역에서의 행동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언어 능력	기본 학습목표	한글 자모 순서, 한글 맞춤법의 기본구조, 질문과 응답을 구성하는 문법사항 등의 기본적인 사항(아직 익숙하지는 못해도) 이해는 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사와 문형, 기본어휘 1,000단어 정도(빈도, 난이도, 중요도 등을 감안)를 가지고 단순 중심의, 특히 빈도가 높은 관용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중간언어 단계를 폭넓게 인정
	어휘	기본적인 인칭 및 지시대명사, 수사(1~100), 고 빈도의 명사와 용언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문장	인사말, 의문문과 응답용 서술문간의 변환규칙, 최소한의 긍정과 부정, 기초 수량 표현, 주어+술어 혹은 주어+목적어+서술어 형식의 기본 문형구조 등을 이해해야 한다.
	발음	모음 '어'와 '으', 그리고 '의'를 느리더라도 정확히 조음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사소리의 된소리의 차이를 인지하고, 문말의 억양도 구별한다.

2급 한국어 능력 평가

사회문화적 요구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생활을 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는 아직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아직 충분히 익히지는 못한 상태이다.
언어 능력	기본 학습목표	기초적인 한국어들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음절식 위기에는 숙달되어야 한다. 기본어휘 1,500~3,000단어 정도의 문장을 이해하며,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다. 중간언어 단계를 약간 인정
	어휘	기본적인 사회관동용 할 수 있는 어휘, 특히 각종 상동명, 기본적인 고유명사, 자신의 전문 분야의 기본어휘를 습득한 상태이고, 기본적인 변칙한용언을 이해한다.
	문장	단문의 대등적 연결, wh - question에 대한 간결한 답변, 격조사의 익숙한 사용, 부정의문문의 원리에 숙달해 있다. 길고 짧은 부정형에 다 익숙하다.
	발음	된소리와 유성음을 잘 구별하고, 모음조화와 자음절변에 익숙하다. 두음법칙을 이해한다.

3급 한국어 능력 평가

사회문화적 요구		한국사회에서의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으로는 큰 불편이 별로 없다. 모르는 사항은 스스로 물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 아직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나 문턱감상 혹은 학술·교육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갖 한국에 온 자국민에게 각종 조언과 안내가 가능하다.
언어능력	기본 학습목표	평이한 한국어급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음. 일상생활의 언어활동에서 빈번히 듣는 말이나 평이한 문장을 천천히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짧은 문장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며, 웬만한 일상회화에 불편이 없는 정도. 임부 통속어 이해
	어휘	일상생활에서의 어휘에는 불편함이 없다. 모르는 단어는 설명을 통해 이해 가능(추상적 의미가 아니면)하다. 중요 시사어휘급 이해한다.
	문장	중속적 연결문, 빈도 높은 변칙용언 등을 숙지하고 있다. 용언에서 부사형을 익숙하게 만든다. 기본적인 피사동 변형이 가능하다.
	발음	두음법칙에 익숙하다. 기본음운과 대부분의 형태 음운적 변동규칙을 숙지하고 있다. 문장 전반의 억양은 아직 고르지 못하다.

4급 한국어 능력 평가

사회문화적 요구		혼자 한국사회에서 생존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간 처리할 수 있다. 직장에서 한국인들과 공동근무는 가능하다.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아직 적잖은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토론이나 집회의 참여가 가능하다.
언어능력	기본 학습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 전화급 이용한 문제처리도 가능하다.
	어휘	일상적 어휘는 충분히 숙달하였다. 그러나 추상적 어휘는 생활과 전문영역 주변에서만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한자 사용 및 이해가 가능하고, 까다로운 변칙용언도 잘 사용한다.
	문장	드문 말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피사동 변형이 가능하다. 비유와 속어적 용법이 아니라면 일반 문장구조 대부분을 이해한다. 감탄문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발음	천천히 발음하면 한국어 억양 재생이 가능하다.

5급 한국어 능력 평가

사회문화적 요구		사실상 한국에서 기본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매우 복잡한 논쟁이 아니라면 대학강의 수강도 가능하다.
언어능력	기본 학습목표	일상생활이나 직업상의 용무를 보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접할 수 있는 공공 텍스트(신문기사, 설명문, 서간 등)나 텔레비전·라디오 뉴스, 평이한 해설 등의 시사문제들을 이해하고, 일상 언어활동에 있어서 불편 없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며, 통속어급 상당수준 이해한다.
	어휘	빈도가 높은 추상적인 어휘는 이해한다. 그 밖의 추상적인 어휘도 설명을 통해 이해 가능하다.
	문장	빠른 발화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문장구조 이해, 문장구조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거나 새로운 문항을 이해한다.
	발음	한국인들의 보통 빠르기의 발화를 알아듣고 말한다.

6급 한국어 능력 평가

사회문화적 요구		사실상 이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배울 필요는 없는 정도이다. 스스로 알아보고, 물어보고, 참고서적이나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자율적 발전이 가능하다. 단,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면 한국의 고전, 방언 등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언어능력	기본 학습목표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급 이해하며, 고도의(현대사회의 일반적 상식범위내) 내용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 수준 높은 문장(신문, 잡지, 교양서, 문예작품 등)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강연 등의 시사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장이나 말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토의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자주 쓰이는 한자에 독음을 달 수 있다.
	어휘	대부분의 일상적 어휘와 전문적 어휘를 구사한다. 그 밖의 어휘도 문맥에 의지하거나 사전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해결한다.
	문장	피복한 표현이나 지나치게 빠른 말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다 이해한다.
	발음	정상적인 발화에서 발음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

위한 것이다.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으나 1997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

중인 '한국어 능력시험'이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평가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각 단계별 정의를 소개한다(〈표〉참고). 이를 통해 학습자

의 한국어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학습 단계와 학습 목표 등을 정할 수 있다.

6.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은 외국 교육기관에서 이미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1872년에 일본 쓰시마에 조선어 학습소가 있었고, 1873년에 동경외국어학교에 조선어과가 있었으며, 1879년에 상트 페테스부르크(구 레닌그라드)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나라는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겨우 이 3개 외국대학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한국어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현재 한국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남·북미에 34개국, 유럽에 47개국, 중동에 18개국, 아프리카에 45개국, 아시아에 31개국으로 모두 175개국에 이르며, 북한과 수교 관계에 있는 9개국을 합하면 184개국이 되어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급격히 활기를 띠어 지금은 33개국의 300여 개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교포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교회 부설 사설 교육 기관까지 합하면 500여 개에 이른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최초의 정식 교육 기관으로는 1959년에 문을 연 연세대학교의 한국어학당이 있다. 그 이후 1970~80년대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어 교육기관이 대학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 교육연구원 등이 설립되었고 1990년대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건국대학교 어학연수

원,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신문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이외에 사설교육기관으로 언어교육연구원, 시사영어사, 미국무성 한국어연구원(FSI),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가나다외국어학원, 아크아카데미 한국어 교육원 등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교육학과가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유일한 학과이며, 최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설립예정) 등에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과정이 도입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단기간의 과정으로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사연수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어 교육연구원, 서울대 어학연구소 등에서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7. 한국어의 위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곳에서의 직접적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한국어 위상에 대해 피력해 보려고 한다.

필자는 1992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 1년 동안 일본의 칸다(神田)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어 회화를 비롯하여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성학, 한국어 문법 및 한국어사를 강의하였다. 칸다외국어대학은 치바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한국어학과 학생은 전학년을 합쳐 약 1백여 명이었다.

필자는 칸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참으로 흐뭇한 일이었다.

칸다대학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는 극도로

고조되어 마침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연수가 실현되었다. 첫번째로 1993년 2월 겨울 방학을 이용한 한국어 연수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이 연수에 참여한 칸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은 무려 24명이나 되었다. 실로 예상 밖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두번째는 14명의 칸다대학 학생들이 그 이듬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외국어연수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들었다.

일본 동경에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데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일본인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약 20명 정도가 참석한다.

필자도 이 모임에 열 번 참석하였고 발표도 한 번 하였다. 이 모임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주로 현대 한국어에 관한 것이다. 발표와 토의가 한 시간씩 꼬박 두 시간이 걸린다. 발표가 끝나면 진지하고 열띤 토의가 진이 빠질 정도로 진행된다. 두 시간에 걸친 발표와 토의가 끝나면 주석이 벌어진다. 술자리에서는 미진했던 논의가 다시 계속되는 것이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필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일본인 학자들과 친교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필자는 토야마(富山)에 있는 토야마대학 조문학과(朝文學科)의 초청을 받아 1993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8일 동안 한국어 집중 강의를 하기 위해 토야마에 간 일이 있다. 강의를 듣는 학생은 10여 명이었고 그들의 한국어 학습 열의는 대단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그들과 생맥주를 마시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토야마는 우리 나라 동해쪽에 위치한 곳으로 설경으로 유명하다. 거기에 머무르고 있던 8일 동안 눈이 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일 년 간의 해외 체류는 짧은 것이지만 그 동안의 직접적인 체험은 참으로 소중한 값진 것이었다. 일본에서의 한국어 위상과 한국어 연구현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국어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날로 높아지고 있고 한국어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화 시대와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어를 국제어로 격상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에게는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8. 결 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학 연구를 하고자 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에게 한국어, 한국의 제반 사정, 한국인에 관한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에 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되어 50년이 지난 지금, 국토가 분단된 상황하에서도 국력의 증강과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고, 500만에 이르는 해외 거주 동포를 비롯한 세계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한국학과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수용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학습자들의 열망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외국에 재외 교육원 등의 국가 교육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IMF로 인한 구조 조정의 여파로 기관의 수도 줄어들고 그 상황도 열악한 상황이다. 우선 한국어 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설·교재·한국어 교사 양성·교수법·교육 자료·평가 방법 등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어의 보급은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어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을 널리 알리는 방법이며 재외국민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고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2세, 3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김영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기심·이상익·홍재성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남성우(1993). "한국어의 위상", 외대학보 제613호.
박기덕(199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小考" 외국어교육연구논집 제6호. 한국외대외국어교육연구소.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ACTFL(1989). *Oral Proficiency Interview*. Yonkers, NY: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Brown, H. Douglas(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i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신성철 역. 외국어교수·학습의 원리. 한신문화사. 1996.)

남성우

서울대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저서로는 『국어의미론』, 『15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북한의 언어 생활』 등이 있다.